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삼위일체 대 축일
제35권 27호(나해) 2015년 5월31일

[묵상]



삼위일체 대 축일

우리는 이미 성삼위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 익숙하다.
자연스럽게 성호경을 배웠었고,
모든 기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다.
미사 중에 시작 인사를 할 때도 마침 강복을 받을 때도
성삼위의 이름으로 하고,
고해성사 중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포를 듣는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성부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고
성부와 성자께 대한 신앙은 친교의 성령을 알도록 우리
를 부추긴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을
하나의 연관성 안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살았는데,
그러한 교회의 감각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반천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애자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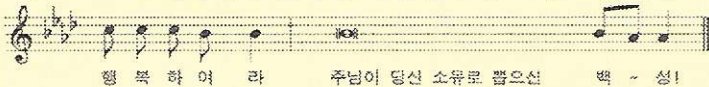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페드로 (310)326-4350 Ext.106
진교수녀 : 김임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김상진 토마스
	(생) 김옥 안토니오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이필주 바오로, 변해경 올리안나, 전시웅 요한,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 이두재 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현시영 요셉, 이용식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노근용 바오로 & 이금순 마리아, 지용애, 김상진 토마스
	(생)서성용 베드로, 정린다 켄마 & 정엘리스 클라라, 이판표 가브리엘, 박광식 바오로 & 박정희 마리아, 김양금 안나 & 김 테니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4,32-34,39-40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 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14-17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복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진실한 사람 바르톨로메오

교회의 오랜 전승은 ‘바르톨로메오’와 ‘나타나엘’을 같은 인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의 명단을 보면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는 항상 같이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실제로 필립보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엘을 소개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벳사이다 출신인 필립보가 갈릴래아로 가려던 예수님을 만난 후 기쁨에 넘쳐 친구인 나타나엘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라고 말하면서 나타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1,43-51

나타나엘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극적입니다. 마치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강한 빛이 빠져나와 나타나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나타나엘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톨로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르톨로메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구약성서에 많은 지식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급대로 바르톨로메오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기도를 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르톨로메오는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며 신앙고백을 합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자신의 성격대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제자의 삶을 살았고, 자랑스럽게 열두 사도로 뽑혔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10,1-4/ 마르3,13-19/ 루카6,12-16

예수님께서 바르톨로메오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 있고 천사들이 오르내린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꿈(창세 28,12 참조)을 암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전승에 의하면 바르톨로메오는 아프리카 지역 등에 전교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참수 당하기 전에 칼로 가축이 벗겨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칼은 바르톨로메오 사도의 성화에서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생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팔호 속을 채워 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 사람이다. 저 사람은 () 이었다.”(요한 1,47)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 이십니다. 이스라엘의 () 이십니다.”(요한 1,49)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삼위일체	105	105
봉헌	264	255	268
성체	378	282	285
파견	105	238	327

우리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느님.

언젠가 한 일간지의 기분 좋은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1부 리그에 진출해서 첫해에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한국 여자축구 스타인 지소연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스물네 살의 그녀가 보여준 엄청난 노력과 상상을 초월한 활약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기자와 함께 인터뷰 장소로 가던 그녀는 폐지를 줍고 계신 할머니를 보자 갑자기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따뜻하게 점심이나 드시라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여줬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말에 지 선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짐도 들어드렸을 텐데... 대신 시간이 없으면 식사라도 하시라고 돈을 조금 드립니다.”

저는 신문을 읽다가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담은 순수한 사랑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이나 마음으로는 느끼지만, 실천까지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길 가다 모르는 이를 도와준 일이 언제였던가. 자신에게 이익이 안되면 부모마저 매몰차게 대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아직도 그런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소박하게 실천되는 삼위일체의 신비구체적인 행동이란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 삼위일체대 축일입니다.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신앙의 핵심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성령 안

에서, 사랑으로 계시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고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신비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체험의 진리입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능력과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신비는 곧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 허영엽 신부 / 서울대교구홍보국장

놀이가 이야기하는 것들

톡톡 불거지는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찾기 위해 감추었던 보물찾기,

들키기 위해 숨었던 숨바꼭질,

완전한 그림을 조각 낸 후 다시 맞추던 퍼즐.

그런 것들이 단순한 놀이만은 아니었구나.

그림 속에 그림을 숨겨두고

다시 숨은 그림을 찾았던 것이

마냥 그냥은 아니었구나.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중철 아브라함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박혜경 레나타
제물봉헌자			토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김금자 테레사	박혜경 레나타
제물봉헌자			P.V.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삼위일체 대 축일

◆ 교회는 성령 강림

대 축일 다음주일을

삼위일체 대 축일로 지내고 있다.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고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마태28,19)에 따라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다. 삼위일체 대 축일이 로마 전례력에 들어온 것은 14세기 요한 22세 교황 때였다.

◆ 2015-2016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4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13일부터 등록비 인상 (\$160, \$140, \$12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학기 준비를 위하여 학생 수 파악이 필요하오니, 가능한 한 1차 접수 부탁 드립니다.

◆주일학교 썸머캠프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일시: 6월26일 금요일 - 6월 28일 일요일
- 대상: 3학년-12학년 (선착순 30명)
- 참가비: \$60 (no refund)

◆2015-2016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마감

- 수혜대상 :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활동 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현재 신청서 배부 중~5월31일까지 마감

◆ 소공동체,성모회,자모회 미션방문

- 일시 : 6월13일(토) 오전 8시성당 출발
- 장소 :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미션
- 회비 : \$10 (입장료별도)
- 문의 : 오혜숙 루시아 ☎310-490-3358

“세 신자 환영합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31일(주일) *토런스 남 1,2반 소고기무국(\$3)
* 주일학교 : 미트볼 샌드위치(5학년)
- 6월7일(주일) *소공동체 : 김밥 (\$4)
* 주일학교 : 뽕페

지나간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박효식 금동균 김병조 김성택 김성현 김원모 김제영 김주량 김철민 김현숙 박진수 배기엽 손춘화 안재만 엄세종 원건희 유보나 윤석구 이남현 이우성 이형삼 장수창 장영진 장은희 정정현 최길주 최원석 최진수 하양숙 한혁수 합계:\$4,070	성전헌금 강미순 박효식 금동균 김병조 김원모 김주량 김철민 김현숙 안재만 엄세종 원건희 이남현 이우성 이형삼 정정현 최길주 최원석 최진수 하양숙 한혁수 합계 : \$1,960
주일미사 헌금 : \$2,126	체육대회기부금: 신부님 : \$500 평협회장: \$100 부회장 : \$300 총무: \$200 여성부회장 : \$200 고규재 체첼리아 : \$300

◆한국학교소식

- 학기말 시험 (6월 7일) - 시상 : 6월 14일 종강식
- 2014~15년도 종업식: 6월 14일 (1:30 ~ 3:00 pm)
- 2015-16년도 새 학기 등록
기간 - 5월 31일 ~ 6월 14일 매주 일요일
시간 - 10:30 am ~ 12:00 pm
* 6월 14일 까지 등록 시 20% 할인혜택 (SAT 반 제외)
-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수강 신청
기간 : 6월 20일~8월 8일 매주 토요일(7월 4일 제외)
시간 : 9:30 am ~ 12:30 pm
- 문의: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남가주 소식

◆LA 대교구 강주원 가브리엘, 송용주 시메온 신부 사제수품식 및 첫 감사미사

- 사제수품식 : 5월30일(토) 오전 9시 LA주교좌 성당
- 첫감사미사: 31일(주일)오후5시성 그레고리 한인성당
900 S. Bronson Av. LA, CA 90019
- 31일(주일) 성 라파엘성당 12366Rosecrans Av. Norwalk
리셉션 12:00 미사 후 라파엘 홀
- 한인교우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함께 자리하시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가톨릭 방송 봉사자 모집

- 자격:나이제한 없음, 열정적이고 성실한 가톨릭 신자 분.
- 모집분야: 방송을 진행해 주실 MC분들,
웹사이트 관리, 전화서비스, 홍보, 사진, 사무정리

◆2015 FIAT 장학금 프로그램 및 봉사인정 프로그램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9th~12th)
- 본당 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월 31일자 소인 찍인 분
- 신청문의-fiata@fiat.org (714)702-9830

◆제21차 남가주 선택 주말

- 일 시 : 7월 17일(금) ~ 7월 19일(일)
- 대상 : 25세~37세 사이의 가톨릭미혼남녀
- 참가비: \$300(본당신부님 지원여부 확인)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Peter Koo (213)605-2817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드 796-6763
차 장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엄영희 베로니카 539-3377 6/10(일)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701-6343 6/13(일)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6/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병찬 안토니오 780-3258 6/6(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명렬 라파엘 991-8556 6/13(토) 오후 7시
	3	정광미프란체스코 617-1132	변숙희 뎃타 617-1132 6/12(금)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대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조정식 수산나 625-3312 6/26(금) 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6/20(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최미영 클라라 404-1607 6/8(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린 마리아 749-3151 6/14(일) 오후 7시
	2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213-700-6983 6/12(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6/20(토) 오전 11시 강당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반나영 체칠리아 617-3568 6/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오후 1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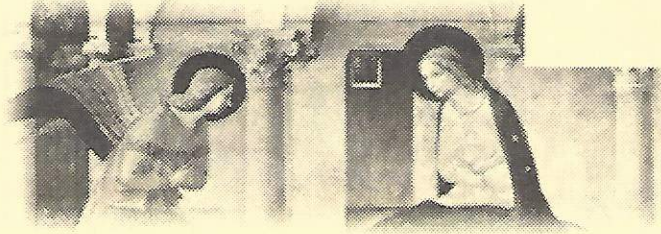
기도의
선
문

성모송



글: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그림: 박우철 포항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으신 성모님!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역시 은총으로
기쁨에 넘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신
성모님!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태증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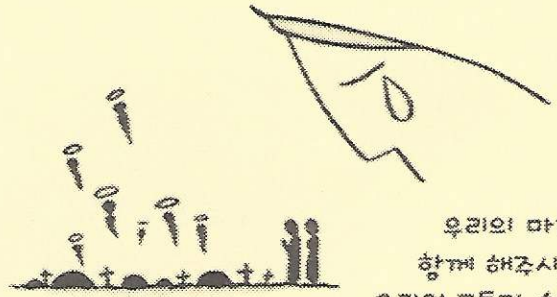
성모님의 순명으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순명으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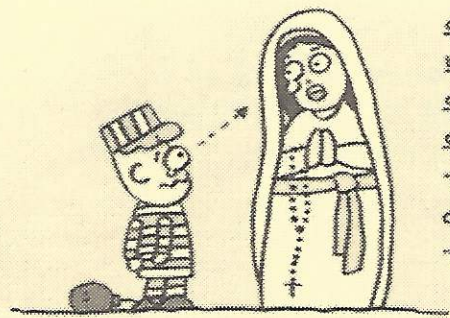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그분은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우리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성모님!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어머니입니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벌어주소서.”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에도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합니다.

“성모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드리면 당신의 영혼이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영혼을, 제 영혼을
드리면 그 영혼은 이제 제 영혼이 아니고 당신의 영혼이
됩니다. 그 영혼을 이용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당신어십니다.
성모님, 정말입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순수하고
순박하여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토마스 아퀴나스

